

◆ 제3종 가축전염병 신설 추진

농림부는 법정 전염병에 제3종 전염병을 신설하고 2종 전염병 일부를 3종으로 전환기로 하였다. 이로써 가축의 이동제한 등 규제가 완화돼 농가의 자율 방역 기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제3종 전염병에 대한 검사, 이동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은 또 사람질병과 혼동될 수 있는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변경하고 국민들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가축 ‘살처분’을 ‘강제폐기’로 바꿨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100% 부담했던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과 방역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토록 해 보상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방역 책임감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 종돈장 검사 PED 대신 PRRS 추진

종돈장 검진대상 가축전염병에 PED(돼지유행성 설사병) 대신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가 추가될 방침이다.

농림부는 최근에 열린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개정 추진계획 협의에서 기존에 추가를 검토하였던 PED와 돼지부르셀라 가운데 PED를 제외하고 대신

PRRS를 추가기로 하였다.

이는 PED의 경우 백신주와 야외주의 감별진단법이 없어 검진이 어렵다는 양돈협회와 종축개량협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대신 검진대상에 PRRS를 추가함으로써 PRRS 바이러스 배출 종돈이 양돈농가에 분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종돈업계는 PRRS의 경우 양성축 발생 시 이동제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행 제2종전염병에서 제3종 전염병으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해줄 것과 항원검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PRRS와 부루셀라의 검진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가축분뇨 자원화 적극 추진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일환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5개 시·군을 선정해 2007년에 총 20억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노력도, 액비저장조 관리, 교육·홍보 실적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부실 사례, 관내 부적정 처리사례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 시·군 선정절차는 시·도에서 시·군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 분석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상위 2개 시·군을 농림부에 추천하면 농림부는 추천 시·군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안을 마련, 가축분뇨 자원화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A·B등급 출현율 상승세 주춤

물태지 출현율이 녀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2월 이후 계속되던 A·B등급 출현율 상승세가 주춤해 그동안 꾸준히 호전되던 돼지고기 품질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8월 냉도체 육질 등급을 받은 돼지는 1만6천453마리로 전월 1만7천481마리보다 5.9%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물태지는 1천192마리로 7.2%를 차지해 지난달 6.4%에 견줘 0.8%P 올랐다. 이로써 4월 8.4%, 5월 7.9%, 6월 7.7%, 7월 6.4%로 내림세를 계속하던 물태지 출현율은 녀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 1등급 이상도 (1+:6.5%, 1등급:22.9%) 29.4%로 7월 30.4%(4.4%, 26%)에 비해 1%P 낮아졌다.

이와 함께 A·B등급 출현율도 상승세를 멈췄다. 8월 등급판정 받은 돼지는 109만4천마리로 지난달 96만마리보다 14%가량 많았다.

이 가운데 A등급은 38만6천마리로 35.3%를 차지, 전달 35.9%보다 0.6%P 낮아진 반면 B등급은 35만2천마리로 32.2%를 기록해 7월 31.6%에 견줘 0.6%P올랐다. 이에 따라 8월 A·B 등급 출현율은 67.5%로 7월과 같아 2월 이후 이어져온 A·B 등급 출현율 상승세가 주춤하였다.

또한 지난해 동기 67.7%에 비해서도 2%P 낮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 도축두수 감소 - 6년5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농림부가 발표한 7월 도축두수에 따르면 돼지는 총 91만2천35두로 지난 2000년 2월 90만8천188두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또 전월 96만5천178두보다 5.5% 감소하고 전년대비 7.0%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암돼지가 46만3천85두로 전월·전년대비 6%씩 감소하였으며, 수돼지는 44만8천950두로 전월대비 5%, 전년대비 7.9% 각각 감소하였다. 또 7월까지 총 도축두수는 727만5천347두로 집계돼 지난해 누계 물량보다 4.9%나 감소하였다. 한편 돼지 생체중은 평균 106kg을 보여 지난해 평균보다 낮아졌다.

◆ 등급판정소 산출 돼지값 선물거래대 대표값 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최근 돼지고기 대표가격 산출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는 2006년 11월 중 상장 예정인 돼지고기 선물거래에 맞춰, 돼지고기 대표가격을 산출·공시하게 된다.

돼지고기 대표가격은 축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11곳의 돼지도체 A·B·C·D등급(E등급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된 가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meat.com/pft/index.asp)에 공시할 예정이다.

◆ 육가공업체 흑자로 돌아서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육가공업체들이 지육가격 하락에 힘입어 7월 들어 흑자로 돌아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7월 지육가격은 전국 평균 3천960원(kg당)으로 6월의 4천695원에 비해 15.7%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때문에 정육과 부산물가격 등을 합친 수입비용이 34만7천480원인데 반해 원료구입과 도축·가공비 등을 포함한 지출비용은 33만5천52원으로 크게 낮아져 마리당 1만2천428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전달인 6월과 원료 구입비용만 비교하더라도 34만6천원에서 29만1천원대로 5만5천원 가량 낮아진 것. 마리당 1만8천원대 적자 경영에서 급반전 한

셈.

8월 역시 지육가격이 3천687원으로 전월대비 7%가 떨어져 육가공업체의 흑자 폭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 돼지 열병(돼지콜레라) 항체검출용 키트 개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으로 유전형에 관계없이 돼지열병 항체를 검출할 수 있고 백신과 야외감염에 의한 항체를 신속하게 감별 할 수 있는 ELISA 진단키트를 (주) 제조바이오텍과 함께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돈열 Erns ELISA' 키트는 돼지 열병 백신주 및 야외주 감별진단 뿐만 아니라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모든 유전형에 관계없이 진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돼지열병 순화 생독 바이러스인 LOM주로 제조한 생백신을 예방접종하고 있으나 돼지열병 근절을 위해 E2 단백질을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마커백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전자 재조합 마커백신을 사용시 백신과 야외감염 항체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법이 수립되지 않아 예찰검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다행이 이번 키트 개발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 돼지열병 근절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양돈 배합사료 생산 다소 증가

지난달 양돈용배합사료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농협과 사료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양돈사료 생산량은 42만톤 수준으로 41만6백47톤이었던 전월보다 2%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만9천톤이 생산된 전년동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생산된 양돈사료는 8월 현재 3백32만여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생산량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별로는 육성돈(전·후기)과 비육돈 및 출하기 사료가 전년동월 보다 감소한 반면 젖먹이와 젖뎨돼지사료는 물론 임신돼지와 포유돈 사료 등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관심을 끌었다.

◆ PED 발병 소강상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돼지설사병(PED) 발생두수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7월 PED는 경북에서 1건 발생, 전월 5건보다 줄었으며 피해두수도 50마리로 6월 2천130두보다 43배 가까이 크게 줄어 금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해 7월 500두(1건)에 견줘서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7월말 현재 PED는 23건 발생해 작년 동기 17건보다 6건 많았으며 발병두수도 6천818두로 '05년 같은 기간 2천761두 대비 147%가 늘었다.

◆ 수입 돈육 원산지 표시 강화

관세청은 지난달 25일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돼지고기의 경우 박스뿐만 아니라 최소 포장인 비닐봉지에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또한 쇠고기와 식용 설육, 가금류 육·설육도 비닐 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267개의 품목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는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 표시방법'(고시 3-3조,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세트로만 판매되는 물품, 상거래관행상 포장·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었다.

◆ 일본

돼지고기 수입 감소세 지속

일본의 돈육 수입량이 두달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일본 식육속보에 따르면 7월 돼지고기 수입

량은 5만4천200톤으로 전월 6만5천800톤에 비해 17.6% 줄면서 지난 1월 5만1천700톤 이후 가장 적었다.

또 지난해 동기 9만3천600톤보다는 무려 42%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냉장은 1만7천400톤, 냉동 3만6천800톤으로 지난달에 견줘 각각 7.8%, 21.6% 적게 들어왔다. 하지만 냉장의 경우 전체 수입량 가운데 32%를 차지해 한달전 29%보다 3%p 비중이 늘었다.

이로써 7월말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42만9천965톤으로 '05년 같은 기간 55만1천800톤에 비해 22.1% 준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14만6천100톤(34%), 캐나다 10만2천977톤(24%), 덴마크 9만390톤(21%), 멕시코 2만3천274톤(5.4%) 순으로 들어왔다.

◆ 러시아

돈육 생산 · 소비 모두 증가

최근 러시아의 양돈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러시아 농업마케팅연구소에 따르면 7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작년보다 7.4%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7월말 돈육 생산량도 전년 동기비 8.9%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년 7월까지 돈육 소비량은 '05년보다 약 20% 많아져 생산량 증가에도 돈육 가격이 작

년대비 7%가량 상승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처럼 러시아의 양돈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은 돼지고기의 소비가 늘어 수익성이 크게 제고된 데다 러시아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돈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미국

7월 돈육 생산량 줄어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 농무부에 따르면 7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70만3천톤으로 전월 75만2천톤에 비해 6.5% 가량 크게 줄었다. 또한 작년 동기 68만5천톤보다는 2.6% 증가하였지만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적었다.

7월말 돼지고기 생산량은 537만8천여톤으로 529만4천여톤에 견줘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7월 돼지 도축두수는 788만두로 전달 834만두 대비 5.5% 적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 많았다.

소 · 돼지고기 수출량 급증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물 포함)의 경우 7개월 동안 73만9,961톤

이 수출되며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였다. 수출 금액은 1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 증가.

그 중 멕시코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증가한 21만7,795톤의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해 미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 시장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한국 역시 높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57%나 증가한 6만3,226톤의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하였다.

한편, 쇠고기(부산물 포함)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증가한 35만4,863톤이 수출되었으며 수출금액은 1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하였다.

쇠고기 역시 멕시코가 최대 수입국으로 나타났는데 멕시코로의 수출량은 20만7,353톤으로 지난해 대비 34% 증가하였다.

◆ 덴마크

수출 생돈 증가 돈육 감소

덴마크의 생돈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 수출은 감소하였다.

최근 유럽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덴마크의 생돈 수출은 327만1천800두로 전년 235만1천500두에 비해 무려 39.1%가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독일로의 수출이 298만마리로 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네덜란드 13만1천마리, 이탈리아 7만마리, 폴란드 5만마리 순으로 수출되었다.

반면 돼지고기의 수출은 113만1천톤으로 일년 전 115만7천400톤에 견줘 3%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76만톤으로 전년 71만9천600톤보다 5.7% 증가하였으나 일본 등 EU 외 국가로는 37만1천100톤으로 04년 대비 15.2% 적게 수출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 EU

치료용 항생물질 사용 급증

유럽연합(EU)이 동물에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 금지로 질병 치료용 항생물질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동물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99년 가축에 대한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한 이후 질병의 발생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질병 치료를 위해 더 많은 항생물질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실제 스웨덴은 '86년 성장 촉진 항생물질들을 법적으로 사용금지한 이후 자돈의 설사병 발생이 '85년 4%미만에서 '87년과 '88년 18%까지 급증했으며 또한 덴마크의 경우도 금지조치를 내린 '98년 이후 자돈의 회장염 진단율이 10%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료용 항생물질의 사용이 '98~'99년 약 6만톤에서 01년 10만톤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종축개량협회

송훈 박사 초청 특강, 돼지 유전능력평가 프로그램 개발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9월 15일부터 (현)한경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송훈 박사를 초청, 매주 월요일 하오 1시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축유전능력평가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유전능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돼지경제형질의 육종가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발지수 산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D/B시스템과 자료의 급속적인 양적증가로 인한 작업속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유전능력평가방법을 도입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하고자 돼지 유전능력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

이희득 회장, 농림부 방역대책협의회 참석



한국종돈업경영인회 이희득 회장은 지난 9월 19일 돼지소모성질환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역대책협의회에 참석하였다.

피아씨코리아(주)

기술세미나 성공적인 개최



피아씨코리아(주)(대표이사 이봉재)는 지난 9월 13일(수)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자돈사/육성사 폐사율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200여명이 넘는 양돈농가와 관련업계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PIC 아시아 담당 이사 Andrew Bateson의 PIC 소개를 시작으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류영수 교수의 '질병과 면역', 그리고 Dr. Geiger의 '자돈사/육성사 폐사율 극복 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좌가 있었다. 이번 피아씨코리아(주)의 기술세미나는 국내에서는 이례적으로 성황리에 대구모로 개최되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의 필요성

과 정확한 농장 상황의 분석을 통한 농장 맞춤형 건강 위생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기본관리를 통하여 모든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점차로 늦어지고 있는 폐사 일령과 자돈/육성 구간에서 전보다 높은 폐사율로 인하여 돈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에게 자돈사/육성사에서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분만사에서부터의 철저한 기본 관리의 필요성과 접근 방향들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번 세미나의 특별 강좌의 강사를 맡은 Dr. Geiger는 지난 5일(화)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 국내 양돈장들을 돌아보며 한국 농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양돈업계의 문제인 전염성 질병의 통제와 폐사율 감소 방안의 모색과 함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주)금보육종

창립 9주년 행사 개최

(주)금보육종(대표이사 장성훈)은 지난 8월 24일에 창립 9주년 행사를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소재한 강원GGP에서 개최하였다.

장성훈 대표의 개회사 후 우수 사원 포상과 사령장 수여가 있었으며, 만찬과 함께 단합을 위한 부서별 족구대회가 시행되었다.

올해는 무장리 원주GGP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소규모로 개최되었으나, 원주GGP가 완공되는 내년의

10주년 행사는 도약, 전진하는 (주)금보육종으로서 보다 크고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 포상자 : 김만진 영업본부장

* 승진자 : 이해철 관리본부장, 김만진 영업본부장, 지현만 생산본부장, 김진용 영서시센터 소장

금돈 농장 설립

당사는 2006년 6월 1일 농업회사법인 (주)금돈을 설립하였다.

농장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위치하며, 회사가 50%, 직원이 50% 투자하여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향후 직원의 복리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가야육종(주)

GP협의회장에 김수정씨

가야육종GP협의회는 최근 제2대 협의회장에 김수정 해인GP 대표를 선임하였다. 김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생산기능인 가야육종과 함께 부산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의 양돈농가가 만족하는 생산성 높은 종돈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1998년에 구성된 가야육종GP협의회는 GP농장 간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육종 개량 및 종돈 보급사업에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대 회장으로 이대호 활천GP농장 대표가 9년간 역임하였다.

진왕영농조합법인

진왕영농조합법인 직원 모집

진왕영농조합법인(대표 정인호)는 동설맥포크 정규직을 채용한다.

모집부문은 회원농가 위탁관리와 브랜드 매니저이며 자격은 대졸이상 남자(33~38세)로 경력자를 우대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본 등이며 내사, 우편, FAX, 이메일로 접수 받고 있다.

* 문의 041-579-9895~6

용인AI영농조합법인

100% 미국산 고능력 웅돈을 보유, 위생적이고 뛰어난 유전자 회원농가에 공급



용인AI영농조합법인(대표 황현상)은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100% 미국산 고능력 웅돈을 보유하여 위생적이

고 뛰어난 유전자를 회원농가에 공급해왔다.

전년도 하반기부터는 우수한 육질의 돈육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아텍(주)을 통해 특히 IMF(근간내지방)가 우수한 미국 ISU SWINE GENETICS 두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중순에 추가 수입예정이며 또한 11월 말에는 일본으로부터 IMF가 우수한 Fujinozo Service 두록을 수입할 예정이다.

국내 돈육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적당한 등지방 두께와 근간내지방함량에 따른 맛의 차별회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브랜드육 생산에 관계하는 농장들의 IMF 두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평균보다 2~4%의 높은 근내지방 함량은 소비자의 입맛을 끄는데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향후 블루오션의 위치에서 육질개량을 위해 한발 앞서 나가는 용인AI영농조합법인의 귀추가 주목된다.

(주)송강GLC

국내 최초로 전자동 정액분주기 개발, 수출
(주)송강GLC(사장 원성오)는 국내 최초로 전자동 정액자동분주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계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액을 일정량씩 분주하여 여러농가의 요구에 맞게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독일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된 것이다.



▲ 전자동 정액자동분주기

지난 달 독일의 MINITUBE사에서 이 제품을 보고 크게 만족하여 현재 상담 중에 있으며 9월 27~29일 VIV ASIA(북경박람회)에 전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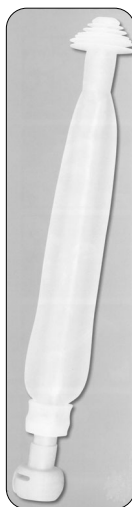
(주)인동비엔지

프랑스 Genes Diffusion 사로부터 용기와 주입기 일체형 차세대 주입기 Gedis를 수입하여 판매

(주)인동비엔지(대표이사 천세진)는 프랑스 Genes Diffusion 사로부터 용기와 주입기 일체형 차세대 주입기 Gedis를 수입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다.

유럽의 유수 A센터와 농장에서 이미 그 능력을 인정받아 유럽 지역에서만 연간 6백만개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으로서 기존 주입기에 비해 작업시간(1분 이내), 수태율, 산자수에서 성적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동비엔지에서는 2006년 7월 수입을 시작하여 국내 유수의 A센터들에게 공급을 하여 한국내의 실험을



의뢰한 결과 유럽과 미주지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내놓았다고 한다.

돼지인공수정에 있어 기존의 주입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역류현상, 주입시 시간과 노동력의 낭비, 청결, 모돈에게 인공적 부자연스러운 수정 등의 문제를 거의 100% 가까이 해결한 Gedis의 공급으로 국내 양돈 농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동진BLS · 동진물산(주)

돼지 인공수정 기술을 집약시켜 놓은 DVD를 제작, 시판



(주)동진BLS(대표이사 김상중) · 동진물산(주)(대표이사 김영수)는 수년간의 노하우로 업계 최초로 돼지 인공수정 기술을 집약시켜 놓은 DVD를 제작하여 9월 1일

부터 시판하였다.

DVD구성 내용으로는 ① 인공수정의 장점, ② 정액 채취, ③ 정액검사, ④ 희석액 제조, ⑤ 정액 희석, ⑥ 정액 분주, ⑦ 발정 확인, ⑧ 정액 보관, ⑨정액주입으로 분류되어 동영상 및 자료들로 상세하게 서술해 놓았다.

본 자료는 돼지 인공수정 초보자를 비롯하여 누구나 쉽게 인공수정을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제작하였으며, 천안 연암대 심금섭 교수가 강의하였다.

이번 DVD 제작은 인공수정에 관련하여 농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인공수정 보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운영중인 “돼지 인공수정 자문위원단”의 많은 활용을 위하여 국내 돼지 인공수정 농가의 질문과 방문요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돼지 인공수정 신기술 보급과 지원에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구입문의: 국번없이 1588-3662

(주)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파워돈컴’ 출시

퓨리나코리아가 양돈장 관리용 프로그램인 파워돈컴을 출시하였다.

기존 관리프로그램인 돈컴21의 대체프로그램인 파워돈컴은 양돈업의 규모화와 다양한 관리기술 접목, 새로운 전산기술개발 등으로 농장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대형농장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자료의 액세스 속도 및 화면조회, 보고서 출력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돈사·돈방 개념을 추가하는 등 위탁농장을 비롯한 다수 농장을 운영하는 대형복합농장들은 여러 농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엑셀 형태로 자료의 입출력을 가능토록 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고 화면해상도 자유자재 변경 및 미리보기 기능 시행 등 그래픽 기능도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양돈농장이라면 퓨리나 판매부장 및 특약점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PWG제네틱스

‘무균돼지 생산방법’ 국내 특허 취득

PWG제네틱스(대표 김진우)는 무균 ‘돼지의 생산방법’에 대한 국내특허를 취득하였다.

이 특허는 무균돼지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로, 돼지를 SPF(Specific Pathogene Free, 특정 병원균 부재) 시설에서 사육해 특정 병원균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김진우 PWG제네틱스 대표는 “이 특허를 받은 방법으로 생산된 SPF 돼지는 특정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SPF 돼지의 경우 무균화 기술이 매우 어려워

희소성이 있다”며 “의약품 검정, 독성, 약리시험 등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장질환과 면역거부반응 연구, 피부이식, 임플란트 등 치의학 분야, 당뇨병 연구 등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주)도드람B&F

축산물처리업체 인수 결정

(주)도드람B&F는 양돈사업 계열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물 종합처리업체 하이미트21C의 주식 42만5천주(50%)를 40억원에 취득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사)한국양돈연구회

『전국양돈세미나』, 10월 12일(수) 개최 예정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김태주)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양돈세미나』를, 오는 10월 18일(수) 천안연암대학에서 개최한다.

“양돈 수익성 증대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의 Lemmon 박사를 비롯한 국내 양돈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되어, 합리적인 농장 경영에 대한 분야별 강의를 해 줄 예정이다(일정표 참조).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지난 5월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강사진을 구성하였고, 전국에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이

번 세미나에도 많은 양돈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 : 02-588-5990(담당 이공주, 사전 참가 신청·입금시 참가비 할인 혜택)

시 간	일 정	
09:30~10:20	접수 및 개회식	
10:20~11:10	농장 경영 분석 사례	장지성 대표 (세은농장)
11:20~12:10	돈버는 양돈 경영	장장길 회장(대한양돈협회 충남도협회)
12:10~13:00	인력 및 모돈 관리 방안	오하식 전무 (가야육종)
13:00~14:00	중식	
14:00~14:30	제 7회 한국양돈대상 시상식	
14:30~16:00	미국의 돈육 생산비	Mike Lemmon 박사 (미국 Whiteshire hamroc 대표)
16:10~17:00	양돈장의 숨겨진 이익 찾기	김관태 박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양돈대상』심사위원회 개최



(사)한국양돈연구회가 주관하는 2006년도 『한국양돈대상』의 심사위원회가, 지난 9월 13일(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수백 명의 추천인단과 그 밖의 많은 양돈인들이 추천한 기라성 같은 후보자들을 놓고, 양돈 업계를 대표하는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수상자 명단은 시상식 당일 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사)대한양돈협회

국무총리상 수상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달 30일 그동안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한국 근현대화 100년 기념'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최영열 회장은 수상소감에서 "양돈협회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소득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번 100년 기념 행사를 맞아 농진청 잔디광장에 양돈 홍보관을 마련,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제7회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이용·개발』국제심포지엄 개최

(사)한국단미사료협회(유동준 회장)는 9월 7일(목) 오전 9시 서초동 소재 호텔센트로 2층 그랜드볼룸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이용·개발』을 주제로 제7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조사료자원의 이용개발 모색에 대한 발표와 또한 사료내 사용가능 항생제가 54종에서 25종으로 축소되는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현실에 발마추어 항생제 대체자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식물성 천연추출제의 이용에 대해 유럽에서 20여년간 사료첨가제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온 Kees geers를 초빙해 유럽의 최근사료동향 및 친환경사료자원 개발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깊은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져 국내 사료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도드람양돈조합

日 수의사 초청 '폐사 대책' 세미나

도드람양돈조합(조합장 진길부)은 오는 11일 일본의 오이 수의사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합원 농가에게 최신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양돈기술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일본의 양돈질병 현황 및 자돈사 폐사 개선 사례'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 및 시간은 오후 1시 전남사무소 2층 교육실과 7시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참가 문의: 양돈연구소 031-631-0972.

(주)고려비엔피

인도국제축산박람회(ILDEX INDIA 2006) 참가

(주)고려비엔피 (대표이사 송기연)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 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ILDEX 국제 축산 박람회에 참석해 회사홍보 및 수출 상담을 진행하였

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당사의 주력제품인 동물용백신 힘백(HIMMVAC), 발포성소독제 라이프가드-정(LIFE-GARD-T), 제3세대 항생제 아반떼-주(AVANTE INJ.)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의 회사로부터 공급 제의를 받아 활발한 수출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사는 여러 해외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마케팅 및 거래선 발굴을 통해 동물약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신 | 간 | 알 | 내



양돈 초보자 위한

발간 · 보급

번식돈 관리상식

◀ 목 차 ▶

제1장 번식관련 기초상식
제2장 후보돈 선발과 관리
제3장 발정유도와 교배적기

제4장 정액주입과 취급
제5장 임신돈 및 분만 관리
제6장 번식성적 영향요인
제7장 번식생리

『양돈 초보자를 위한 번식돈 관리상식』은 필자가 그동안 양돈업계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얻은 현장사례를 엮어 번식돈 관리와 관련된 기본 관리 상식을 학문적 관점보다는 실무 적용 위주로 초보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책이다.

□ 판형 : 신국판 □ 페이지 : 234쪽 □ 책값 : 12,000원

□ 구입문의 : 02-588-9308(담당 원미진)